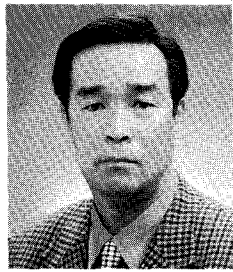


생산자 단체의 힘은 생산자에게 달렸다



장 재 성

(대구경북지부 육계분과위원장)

어떤 업종이든 쉬운 업종이 어디 있겠냐 마는 특히 우리 육계업은 더욱 그렇다. 바꾸어 말하면 대기업이나 자본가가 진출하여 쉽게 고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육여건이나 유통변화 등 다양한 특성 때문에 영세한 농민의 생업기반으로써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그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들에 의해서 사육농가는 그들의 고용인으로 전락하여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서게 되었다.

지난 5월 28일자 모축산신문 한면을 장식한 계열업체 사장의 성공사례 특집 기사를 읽으면서 육계사육농가의 한사람으로써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육계업으로 시작하여 천재적인 사업능력과 경이적인 매출 신장 및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한 그의 업적을 읽으면서 씩씩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계열업체는 일취월장(日就月將)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성장하여 세상이 놀라는데 그 주인인 사육농가들의 성취감은 얼마만큼일까?

필자가 육계업을 시작한지 꼭 십년째 접어든다. 긴 세월은 아니지만 돌아켜 보면 외형적인 많은 변화를 실감하면서도 정작 사육농가의 여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세상은 변해 온통 제 몫 찾기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건만 우리 사육농가들은 긴 동면에서 깨어 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나만이 살겠다는 구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잘한 것은 내 탓 못한 것은 남 탓'으로 돌리려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육계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1. 생산자 단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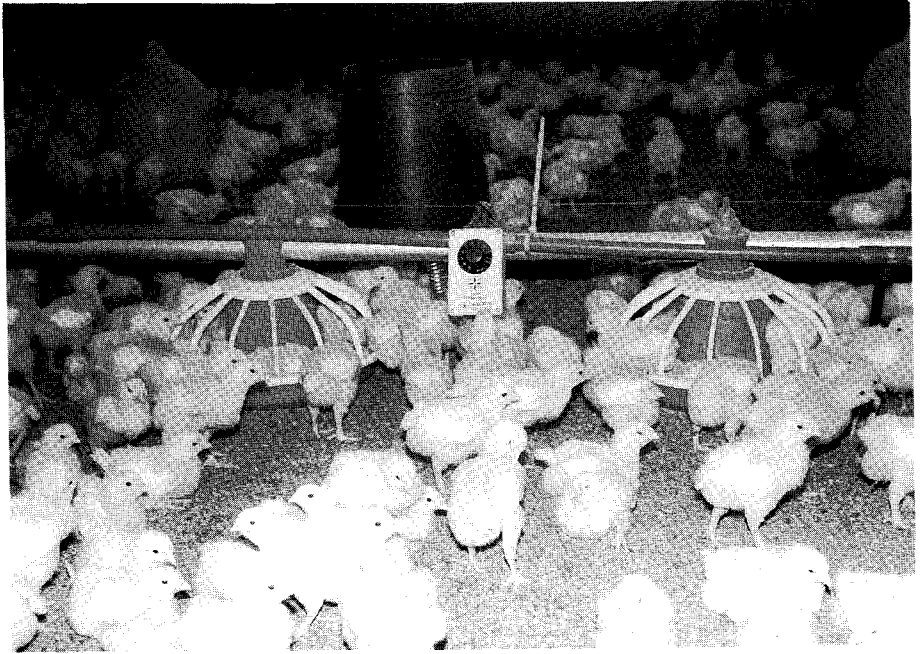
최근 농업의 변화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각 분야별 협회 결성이다. 기존의 축산단체를 필두로 얼마전 한우협회가 발족하여 호주산 생우수입을 막아냄으로써 생산자 단체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적이 있다. 더 나아가 시설원예, 과수, 등 모든 축종이 협회를

결성하여 생산자 단체로서의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심각한 현실을 깨달은 탓일 것이다.

대구경북지부는 이에 발맞추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육계협회란 명칭으로 독립되어 운영되던 생산자 단체를 경북지부 사무실로 통합하고 기존의 각 시군 및 협업체와 유대를 다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북부, 서남부, 동부지역을 총괄하여 지부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 사육농가들이 같이 이해하고 동참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양심적이고 깨끗한 닭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유통업자들과의 상호간의 이해를 끌어낼 때이다. 우리지역에서는 유통상인들이 유통회원 자격으로 지부에 참여하여 시세 및 정보교환과 함께 지역 시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처럼 공생공존하는 분위기를 이끌어야 업계 및 협회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2. 질병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육계의 성숙은 빨라지고 있지만 고온 기온이 지속되면서 환기 관리가 미흡한 농장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큰 닭 위주의 출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뉴캐슬병이나 가금인플루엔자로 추정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전반적으로 종계나 육계의 생산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뉴캐슬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1차 부화장 분무백신을 하고 2차 농가 백신 공급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전 준비없는 시도별 갈라먹기식 배정과 사육자와 협의 없는 일반 담담자들의 약품계약 및 원칙없는 농가백신 공급은 좋은 제도와 국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여 질병 발생을 부추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간의 불신과 나아가 양계협회와 농민정책마저 불신

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농가가 더 많다는 데 있다. 이것이 육계인들의 현실이며 현주소이다. 이는 모든 육계인들의 책임이며 자기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이다.

3. 사육농가의 힘을 키우자

대구경북지역은 전국의 계육협회 소속 모든 계열사가 진출해있으며, 유사계열업체까지 합하면 계약사육농가는 80%를 상회할 것이다. 계약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인 계약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우리도 이제 주인의식을 되찾을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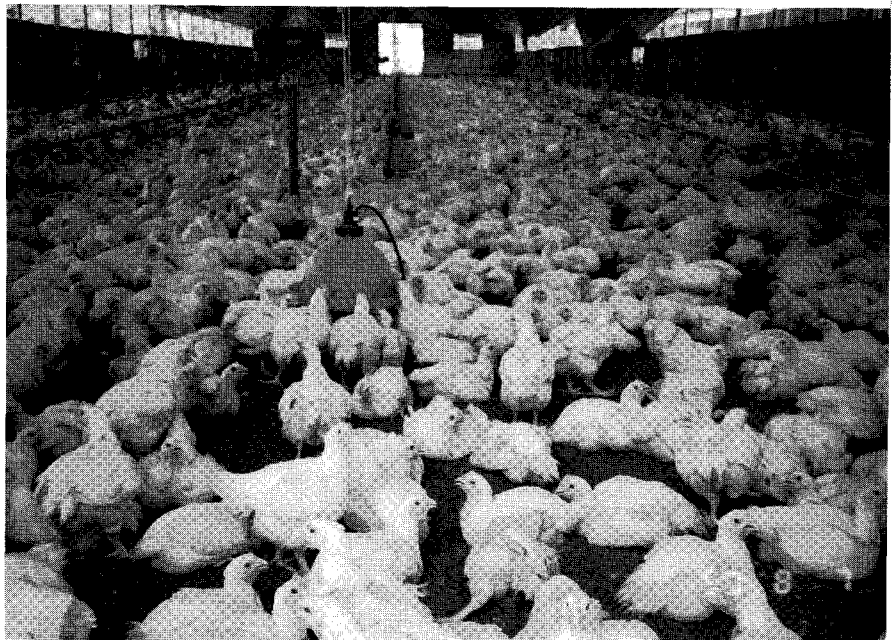
우리의 유일한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란 공식 채널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모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우리 육계분과 위원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계열업체와 사육자가 공감하는 계약서 작성을 위해 작업중에 있다. 계약사육농가든 일반사육농가든 우리 생산자 단체의 모체인 (사)대한양계협회임을 깨닫고 전국의 모든 사육농

가가 하나되어 힘을 모을 때라고 본다.

4. 복경기 전망

오는 7, 8월은 육계업자가 일년 중 가장 바쁜 복이 있는 달이다. 그런데 이번 복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세가 좋지 않다는 견해가 많아 여름철 육계산업이 호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년 여름철 닭고기 생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종계는 2000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종계로 1999년 대비 137,800수가 많이 입식되었다. 종계사료 생산실적도 2001년 초반기부터 증가세를 나타내었는데 3~5월의 종계사료 실적(산란종계+육용종계)은 75,728톤(잠정치)으로 전년대비 7.4%가 증가하였다. 특히 육용종계사료 실적은 3월이 19,320톤, 4월이 18,941톤으로 전년대비 17.5%, 15.2%가



각각 증가되었다.

올 5월까지 수입된 닭고기량은 35,891톤이고, 월 평균 7,178톤이 된다. 1999년에는 5월과 6월에 집중되어 수입되었지만 2000년부터는 11월부터 3월까지 수입량이 많았다. 닭고기 수입은 구제역 및 광우병으로 인하여 외국의 닭고기 소비 증가로 가격이 상승되었고, 국내 환율이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6일 홍콩 카우룬의 취엔완, 몽콕, 서부지역 등 3개 시장에서 판매되는 닭들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돼 닭 판매점들을 전면 폐쇄하고 3개시장내 38개 닭 판매점에 대해 4천7백마리의 닭과 메추리를 즉각 도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검역 당국에서는 중국산 수입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그 후 6월 4일 중국산 오리에서 가금인플루엔

자 병원균이 발생하여 중국산의 닭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닭고기 수입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번 여름은 윤달이 있어 고온다습한 기간이 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닭고기 시세 영향을 미칠 육용실용계 입식수수도 예년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 여름이 길면 질병에 의한 피해보다는 환기 피해가 많고, 구제역 여파와 중국산 닭고기 수입중단으로 인한 수입산 닭고기의 불신이 커지게 되고, 여기에 날씨가 무더우면 닭고기 소비는 예상외로 원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닭고기 가격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초복보다 말복 때에 생산비를 웃도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양계**

안프로솔 아미노판

◎ 아미노산, 비타민 종합영양제

- 비타민 AD₃E와 B그룹+18여종의 아미노산
- 5ℓ : 성계 5만수용(치료)
성계 10만수용(예방)
- 여러 종의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고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최상의 종합복합영양제로 최상의 생산성을 보장

노박 30

◎ 고농축 광범위 항균제

- 30% 고농축 노플록사신 액제
- 1ℓ : 성계 30,000 수용
(1일 음수 200ℓ/성계 1,000수 기준)
- 고농축, 고함량으로 유효 혈중농도에 신속히 전달
- 호흡기장애, 세균성 설사 등에 확실하고 빠른 치료 효과

원무역상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32 방배오피스텔 214호
TEL. (02)583-8528~9 FAX. (02)523-1696